

哲學 意義와 範圍 (一)

韓稚振

一. 철학이란 概念과 그 問題

철학이란 것은 생활의 普通 經驗과 科學的 研究로 어든 一切 事實을 綜合하여 一致한 合理的 世界觀과 人생을 作成하려는 知的 關係이다. 이 世界觀과 人生觀은 다시 사람 마음의 要求와 理性的 要求에 適當한 것이 되어야 한다. 一切 哲學的 思考의 唯一한 目的은 맨 처음부터 이 世界와 人生生活을 合理的으로 說明하려는데 잇섰다. 비록 哲學의 內容과 방법에 對하여 各種 意見이 不一하지마는 世界를 合理的으로 說明하려는데 잇서서는 一段 哲學的 系統은 共通한 目的을 가졌다. 이런 故로 모든 哲學思想 系統은 다 世界와 生活에 對한 說明이라 할 수 있다.

한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以上과 가튼 世界觀은 仔細한 科學的 研究가 업서도 오즉 思考의 純粹한 形式(範疇)에 根據하여서 組織할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意味의 哲學은 諸科學의 王이 되어 어느 科學的 又は 歷史的 研究의 結果는 엇더한 價値가 잇고 有力한지를 命令적으로 判決하여 준다 하였다. 그러나 철학을 諸科學의 王으로 看做하든 때는 벌써 지나간 지 오랫동안. 엇더한 種類의 哲學이든지 科學的 研究의 結果를 無視하거나 그 方法을 是非하거나 혹은 그 結果와 矛盾되는 態度를 取하는 境遇에는 그 哲學은 조금이라도 人氣를 쓸 資格이 업다. 이럼으로 哲學은 科學과 密接한 關係를 매저야 할 썬이 아니다. 그 研究의 結果를 完全히 認定하여야 한다. 이 科學的 土臺에 根據하여서만 哲學은 科學의 短片的 事實을 綜合하여 前後 矛盾이 업는 合理的 思想系統을 作成할 수 있다. 이러한 哲學의 職分은 科學이 認定한 思考의 方法과 手段을 使用하지 안코는 不能하다.

哲學의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理知的 思考의 職分만 아니라 우리의 情緒 特別히 意志도 世界와 人生에 對한 解釋 爲 哲學을 作用하는데 만흔 影響을 준다. 가장 實質的 哲學家 中에 하나인 『허-벳스펜서[허버트 스펜서]』는 그

自敍傳에 아래와 가티 말하였다.

『感情』은 理知와 가티 一切 思考의 體系를 起源하는데 必要한 役割을 한다』

哲學的 體系는 日常 研究의 支離를 甞기는 사람의 避難處로 看做하여서 안 된다. 『픽테[피히테]』의 말과 가티 一個人의 哲學은 性格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哲學 研究는 冥想的 安逸의 職業이 아니요, 따라서 事業의 世界에서 隱退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情密히 科學을 研究함으로써 宇宙에 對한 哲學은 우리의 普通 經驗에 應用하여 人生의 生活을 高潔케 하며 그 希望과 目的을 더욱 善美케 할 것이다. 哲學은 엇던 높은 塔 위에서 世上의 活動과 競爭을 慇懃히 觀望하는 것이 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이 世上과 人生을 高尚한 見地에서 보도록 指導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故로 哲學의 根本的 目的은 高尚한 立脚地에서 人生이 到達하려 하는 遠大한 目的地를 指示하며 우리 사람들이 協力하여 그 目的地를 達할 수 있도록 함과 自信을 鼓吹하는 데 있다.

二. 哲學의 心理的起源

組織的 一致한 世界觀에 對한 要求는 우리 사람의 心願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 要求의 原初的 形式은 驚異의 感이다. 『플레토[플라톤]』와 『아리스토텔[아리스토텔레스]』도 이 驚異의 感を가라쳐 哲學의 始作이라 하였다. 이 感情은 우리가 임의 가지고 잇는 世界觀과 쉽게 一致하지 아니하는 엇던 新 經驗을 當面할 때에 發生한다. 이 驚異의 念은 혼이 恐怖에서 생기나니, 그는 무엇이든지 異常한 것은 危險性을 나타내이기 쉬운 까닭이다. 그러나 이 實際的 驚異外에 恐怖와 關係하지 아니한 理智的 驚異라 할 經驗을 觀察할 수 잇스니 이는 小兒에게서까지 차차 볼 수 잇는 것이다. 그런 고로 思考는 맨 처음에 生存維持의 目的으로 始作은 하나 漸漸 獨立的 作用으로 發達되어 實際的 必要의 刺戟을 켜나서도 홀로 作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兒童에게는 이 驚異와 好奇心은 異常하고 우서운 表情과 天真한 質問으로 나타난다.